

전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제 1독서 : 민수 6, 22-27

제 2독서 : 갈라 4, 4-7

복 음 : 루카 2, 16-21

순정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루카 2, 19)

강론

믿음의 새 인간

이재후 신부/평화동 천주교회

성 벨라도는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은 “입에 단꿈, 귀에 울리는 선물, 마음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새해는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교회는 예수를 새해의 좋은 친구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자기 인생을 체념해 버린 어떤 청년에게 이 세상은 우울하기만 하고 귀찮으며 괴롭기조차 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가치라는 것들은 모두 우수한 헛소리로 들리고 삶이란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살아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하고 자문자답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한 소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이 자연은 아름답고 새들의 울음소리는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살만한 세상이야”하고 그 청년은 소녀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인간이 된다”(2고린 5,17)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와의 사랑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결단하는 때에 우리는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입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복시 3,20)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순간 순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새해 첫날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나 항상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리

선거의 해를 맞으며

지난 해에는 참으로 힘들었다. 여기저기에서 정신없이 터진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생각하기가 싫을 정도였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누적된 잘못들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통감하려 들지 않는 김영삼 정부의 자세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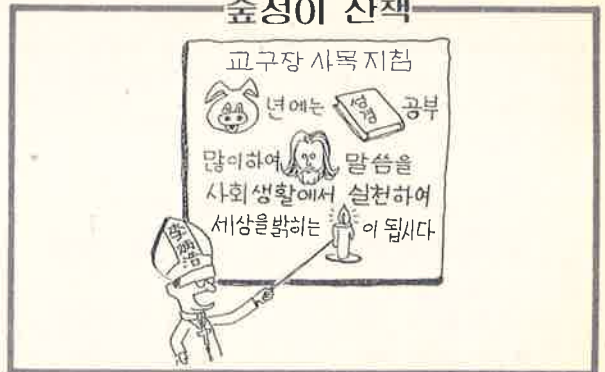
2년 전 우리는 소위 문민정부의 출범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는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거창한 구호들로 분장된 김영삼 정부의 허상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치루어야 할 선택의 대가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다짐과 기약을 해야 한다.

올해에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가 있는 해이다. 시(군) 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장(군수)과 도시사를 뽑는 해이다. 어느 조직이건 그 대표를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주어진 임기 동안에는 연대책임으로 고생을 해야 한다. 우리의 대표를 빼그덕거리는 의자를 바꾸듯이 갈아치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어느 광고문안처럼 한 번의 선택이 평생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의 잘못은 상당기간의 휴유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올해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선택에 양심을 걸어야 할 때이다. [卍]

순정이 산책



세계 평화의 날 담화(발췌)



여성,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

1. 1995년 정초에,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천년기(千年基)를 바라보며, 저는 선의를 지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세계 평화를 위한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2. 평화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황 요한 23세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평화로운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가리키신 가치들, 곧 진리, 정의, 사랑과 자유를 받아들이도록 마음과 정신을 열어젖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고 평생 동안 지속되는 교육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특별히 여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존존재를 걸고 모든 행동에서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개인간, 세대간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민족의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서, 특별히 분쟁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고, 평화의 사자와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평화의 교사들이 되라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당부하는 이러한 권유는 하느님께서 여성들에게 "인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맡기셨다"는 깨달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타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공동 소명에 들어있는 보완 역할의 논리에 따라 이해되는 것입니다.

4. 슬프게도, 죄의 오랜 역사는 부부를 위한, 남성과 여성을 위한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을 어지럽혀 왔고, 계속하여 어지럽히고 있으며, 그 완전한 성취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으로 되돌아가 이 계획을 힘차게 선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특별히 그 성취의 실패로 고통을 받아 온 여인들이 마침내 그들의 여성과 존엄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5.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여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키워야 합니다. 내적인 평화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에서 나오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뒷받침을 받아 착취와 차별과 폭력과 전쟁의 어려운 상황들을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여성들의 놀라운 표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머니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시절에 어머니와 아기를 결합시키는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어머니는 아기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 줍니다.

이러한 최초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다른 가족들의 관계가 사랑에 가득찬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두드러진다면,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평화를 중진하는 가치들, 곧 진리와 정의의 애호, 책임있는 자유의식, 다른 삶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9. 여성들이 그들의 천부적인 역량을 공동체 전체와 더불어 온전히 나눌 수 있을 때에, 사회의 자기 이해와 조직 방식 그 자체가 개선되고 또 인류 가족의 실질적인 일치를 더 나은 방법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10. 우리는 오늘날 경악과 우려를 안고 온갖 폭력의 극적인 증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들만이 아니라 집단들 전체가 인간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전쟁의 비극만이 아니라, 바로 수태의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누리는 명백한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비롯, 온갖 인권 침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전쟁이라는 극도의 폭력을 낳는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모든 여성들이 언제나 생명의 편에 서도록 호소합니다.

11. 여성들은 그들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자와 여자 곧 모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1995년을 위해 계획된 많은 국제 활동들, 그 일부는 국제연합(UN)의 후원으로 북경에서 열리게 될 평등과 발전과 평화에 관한 여성 대회처럼 특별히 여성을 위하여 계획된 활동들이 모든 인간 관계와 사회 관계를 평화의 가치 아래서 더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12. 생명에 봉사하며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신해 온 저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껏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간청합니다.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정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평화의 하느님 그 사랑하시는 현존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게 되기를 빕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완구의 모든 것
 발육완구 · 학습완구 · 각종게임기류
아카데미 완구 **아이들 세상**
 중앙국교 앞 군산역 앞
 박한응(요한) 김현자(수산나)
 ☎ (0654)446-1853 (0654) 43-4536

금·은·보석·시계
다이아나
 결혼예물 우대, 제조직 환영
 김윤중(베드로)
 박명자(마리아)
 서도프라자 1층 104호
 ☎ 222-3274~5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 · 피부과
 메이크업 · 분장과
 김금순(테레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교리상식 13

성탄절

성탄절의 이해와 의의

'성탄'이란 하나님이 당신 사랑으로 인류에게 보내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말하며, 이를 기념하는 날을 성탄축일(크리스마스)이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심을 특별히 기념하는 시기를 성탄시기라 하며 이 시기는 성탄축일부터 주의 공현 다음 주일, 즉 주의 세례축일까지를 말한다. 부활이 그리스도교 전례주년의 중심이라 한다면 성탄축일은 믿음에 대한 최대의 인간 축제로서 이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깊이 감지할 수 있다. 즉 성탄 축제의 핵심은 '하느님 아들의 지상 파견'이고 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탄의 의미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음과 참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돌입했음을 알려 준다.
- 2) 무한한 생명과 행복을 본성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탄생하심은 그 자체로서 '복된 소식'이 된다.
- 3) 성탄 사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사람으로부터 나시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나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 4)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선민으로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뚜렷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유대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외교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신다는 의의가 있다.

교구 소식

1. 이병호 주교님 미사일정 : 1월1일(일)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2. 이병호 주교님 신년하례식 : 1월2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 참사회 : 1월5일(목) 오전10시 교구청
4. 교구청 신정 휴무 : 1월3일(화)
5. 교구청 시무식 : 1월4일(수)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6. 가톨릭 문우회 모임 : 1월7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7. 예·신 월례모임 : 1월8일(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8. 부제서품 대상자 피정 : 94년 12월25일~95년 1월24일 수류 피정의 집
대상-여혁구·아오스당(연지동), 최중수·윤호 요셉(임실)
이상용·야교보(서신동), 오정선·요셉(주현동)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9.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20차 정기총회 : 1월2일(월) 오후1시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10. 남성 49차 꾸르실료 : 1월5일~8일 천호 피정의 집

- **성소모임**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 1월8일 오후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 842-4132
- 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 1월8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0653) 53-8395
- 거룩한 말씀회 : 1월8일 오후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84-2276
- 성바오로딸수도회 : 1월8일 오후2시 성바오로서원 (0652) 252-3398

요심이 (1114) 김병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 재(베네딕도) ☎ 75-0550

우편통신에 의한 신학공부(2년제)

· 대상 : 전신자(연령제한 없음)
· 과목 : 성서, 신학전반, 영성
· 접수기간 : 95.1.4~95.1.25
· 원서청구시 소액환 4,030원
서울 종로구 회화동90-12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 747-8501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무지개 광고

간판, 현수막, 상패, 기념품
김창식(스테파노) ☎(0652)252-0207 FAX (0652)252-0208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주장(이나시오) 차숙(글라라)
코야권너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성신당 한약방

이홍재(요셉) 유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효자(삼천왕릉 APT 앞) 221-8331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랑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평화의 날)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 성탄준비 및 대립절 사랑의 나눔 성금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특별기도 및 성체감복: 5일 저녁미사 후
- 3. 병자 봉성체: 6일 오전중
※ 환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4. 사목회 상임: 6일 저녁미사 후
- 5. 이동열(모세) 신학생 군입대: 4일 기도바람.
- 6. 모임: ①울뜨레아(1일 장엄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 모임(5일 전 10시30분)
④장우회(8일 장엄미사 후)
- 7. 금주 청소: 중노 15, 16반
차주 청소: 중노 17, 18반

- 1. 사무장 임명: 김영권(베드로) 형제님 수고많으시겠습니다.
-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 3. 반장회: 오늘 공식미사 후
- 4. 자모회: 1월4일(수) 오전 10시30분
- 5. 꾸르실료 연수 참가(1월5일~8일): 이정환(요한)
- 6. 사목회 확대회의: 1월8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참석 대상-사목회 임원, 신심단체장, 반장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영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 오늘은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 2. 남성 제49차 꾸르실료: 1월 5~8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주호 프란치스코 형제 참가)
- 3. 최 수녀님 피정: 1월4일~14일(영육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4. 울뜨레아: 1월3일(화) 저녁미사 후
- 5. 구역분과회: 1월3일(화) 오전 10시
- 6. 성체 감복: 1월5일(목) 저녁미사 후
- 7. 여성분과회: 1월7일(토) 오전 10시
- 8. 다음주일(1월8일) 모임안내:
· 요셉회, 해설자 모임, 대건회-공식미사 후
· 꾸리아-오후 2시
· 청년회-저녁미사 후
성탄 청소: 7일(토)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안명수 가족
차주 전례: 해설-형일순, 독서-신태섭 부부
봉헌-최길래 가족

- ◎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 1. 금주: ①신년 하례식-공식미사 후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속글라랑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 2. 성체감복 및 조배: 5일(목) 오전 10시
- 3. 성모성심회: 5일(목) 오후 3시
- 4. 병자 봉성체: 6일(금)
- 5. 빈첸시오 회원 모집: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5회합실)
- 6. 성화회 임원 개편: 회장-박순기(요한)
총무-배한수(시몬), 양현홍(이레네오)
- 7. 차주: ①주의 공현 대축일-주교님 미사 집전-공식미사
②자모회-전 10시
③일치의 모후Cu.-후 2시
④사목회-후 8시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평회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사목회
- ◎ 오늘은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의무 대축일
- 1. 오늘은 교무금 및 사제 양성 후원회비-의무 대축일
'95년도 교무금 신입하세요-8% 인상-
- 2.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7일(토) 저녁
③안나회, 자모회-다음주일
- 3. 성체감복 및 성시간: 5일(목) 저녁미사 후
- 4. 구역형제회: 10일(화)-서당, 내정, 풍기, 백암, 어두, 신흥, 마지
11일(수)-수원, 하산, 상산, 원신, 색장, 의암
- 5. 성탄 꽃 봉헌: 김금자-5만원. 김완식, 송순자, 강옥례, 서당리
구역-각 3만원, 김봉길, 박 실비아-각 2만원.
- 6. 불우이웃돕기 성금: 김완식-5만원. 김남순, 최영순-각 1만
원. 신부님-10만원.
- 7. 꾸르실료 남성 49차 교육: 5일(목)-8일(일)까지
황상호(안드레아), 정한모(베드로) 형제님
- 8. 꾸르실료 여성 48차 교육: 12일(목)-15일(일)까지
김미남(루시아), 주영혜(크리스티나) 자매님
- 9. 금주 청소: 사랑하을 어머니Pr.
- 10. 차주 청소: 황금의 궁전Pr.
- 11. 금주 전례: 해설-이훈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남현준씨 부부
- 12.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주영혜
봉헌-이정우씨 부부

- ◎ 예수의 이름은 “입에 단꿈, 귀에 울리는 선율, 마음의 기쁨”
- 1. 성시간 성체감복: 5일 후 8시 “사목교서 말씀 묵상”
- 2. 구역 반희장 연수: 3일 전 10시30분, 반미사 시간 보고
- 3. 유아 세례: 7일 후 2시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람.
- 4. 남성 제49차 꾸르실료 참가: 5일~8일, 천호, 이용원(가브리엘)
류덕진(비오) 이상수(프레드릭)
- 5. 가정 방문: 3일 후 2시 12-1.2, 4일 후 2시 12-3
6일 전 9시 13-1 후 2시 13-2
- 6. 회의: ①부녀회-4일 어머니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30분
③성체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7. 주일학교 교리 방학: 미사는 매주 토요일 후 3시
- 8. 전입을 환영합니다:
요오룡APT 김영중(요셉) 4/1006 ☎224-4479
김문희(야고보) 12/1502 ☎221-1707
최순이(분다) 12/1702 ☎223-3344
김영근(요아킴) 2/1402 ☎222-1893